

[ 그때 그 이야기 ]

# 그 시절 시골의 별천지



현동운 프로필 :

현 중국조선어정보학회 회장. 70년대 '하향지식년'으로 6년 생활. 1980년대 대학 졸업후 30년 넘게 조선어언어 정보기술 국가표준 연구에 종사. 현재 역사기록 정리중.

요즘 도시의 밤하늘에는 별이 없다. 아니, 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별을 볼 맛이 없다. 가로등 불빛이 하도 많아 진짜 별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네온사인하고 광고판 불빛이 밤을 낮처럼 밝히고 자동차 불빛이 끊임없이 흐르다 보니 사람들의 시선도 자연히 땅으로만 쏠린다. 하늘을 올려다볼 마음의 여유부터 사라진 셈이다. 그래서인지 도시의 기억은 대체로 싱겁다. 밝기는 한데 깊은 맛이 없다. 별을 올려다볼 틈도 없이 하루가 지나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50년 쯤 전으로 돌아가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1970년대 초 집체호 시절, 나는 처음으로 심산벽골 원경지 감자밭에 로동 배치를 받고 올라갔다. 화룡현 덕화공사, 지금의 남평진 룡연마을에서 십여리 더 들어가는 골짜기였다. 그 골짜기 이름도 뒤골이라 불렀는데 낮에는 산들이 둘러싸 하늘이 좁아보였지만 밤이 되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감자 농사를 처음 겪는 풋내기 농사꾼이었던 우리는 운종일 등을 굽

히고 일했다. 새까만 부식토 먼지를 뒤집어쓰고 일하고는 해가 저물면 남녀가 갈라져 작은 오두막에서 잠을 잤다. 낮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감자밭 이랑을 따라 호미질을 하며 감자씨를 박아놓았다. 이랑을 따라 허리를 굽힌 채 같은 동작을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등에 땀이 흥건히 배어 옷이 몸에 달라붙곤 했다. 그 감자밭에는 나와 함께 집체호에 내려온 녀동창도 있었다. 소꿉시절부터 시내에서 같은 학교를 다니던 사이였다. 서로 새삼스레 친해질 것도 없는,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그런 사이였다. 낯선 심산골에서 그녀는 나에게 가장 익숙한 얼굴이기도 했다. 땀범벅이 된 나를 보면 그 친구가 슬쩍 아무 말 없이 수건 하나를 내밀곤 했다. 얼굴이며 목덜미가 흠과 땀으로 범벅된 나를 보고는 살짝 웃으며 닦으라는 눈짓을 했다. 나는 괜히 멋지게 웃으면서 그 수건으로 얼굴을 훔치곤 했다. 수건에서는 해발에 딸린 천년새와 함께 어딘가 정겨운 냄새가 났다. 점심때가 되어 발머리에 둘러앉아 '단체식사'를 할 때면 그 친구는 늘 자연스럽게 내 옆자리에 와 앉았다. 특별히 약속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 반찬을 조금씩 나누어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고향 이야기, 학교 이야기, 그리고 별것 아닌 통담 같은 것들이었다. 그 친구는 그곳에서 나에게 가장 가까운 말동무였다. 하루종일 고된 로동 속에서도 가끔 눈이 마주치면 서로 웃어주곤 했다. 그 웃음 하나만으로도 이상하게 힘이 조금 더 나는 것 같았다. 낮에는 그렇게 감자밭이랑 사이에서 함께 일을 했고 밤이 되면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다시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곳의 밤은 어둠이 내려앉은 것이 아니라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 하늘 가득 채우는 시간이었다. 마치 별들이 밤 근무를 서러 출근하는 것 같았다. 하늘이 별로 꽉 차서 우리가 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몸은 늘 지쳤지만 초저녁이면 나는 오두막 밖의 통나무에 앉아 쉬곤 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살짝 나와 내 옆에 기대앉곤 했다. 특별히 할 말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우리는 잠시 웃다가 조용해지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그러다 내가 괜히 아는 척을 했다. "아- 별들이 우리를 내려다본다. 저기는 동쪽이고 이쪽이 화룡 쪽이고 저기 저기는 아마 동해바다일 걸..." 지금 생각하면 별들에게도 민망한 말이다. 별자리 하나 제대로 모르는 내가 괜히 큰소리를 친 셈이다. 그러나 그때는 꽤 그럴듯하게 들렸는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내가 가리키는 쪽의 별들이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깜박깜박 빛났다. 그 관계를 런이라고 부르기에겐 어설프고 그렇다고 혼자라고 하기에는 덜 외로웠다. 별빛이 외로움을 대신 해주던 사이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참 서툴렀다. 지금 같았으면 손이라도 잡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내 어깨에 살며시 기대앉던 그 모습에 고운 여자친구를 나는 어딘지 모르게 평평하게 대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마치 밤하늘의 찬 별을 대하듯 가까이 있으면서도 괜히 거리를 두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랬다.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함부로 표현할 수 없는 세월이었다. 약속 한번도 제대로 못한 채 서로의 눈빛으로만 마음을 전해야 했다. 우리는 말 대신 눈빛과 침묵으로 마음을 전하며 절도를 지켜야 했다. 매일 고달픈 로동을 끝내고 그 심산 속의 별나라를 함께 올려다보던 열을 남긴 밤들이 있었다. 우리는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작은 속삭임들이 오가곤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들이 아물아물하다. 다만 기억나는 것은 하나, 그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좋아한다'는 말까지가 한

◎ 현동운

계였다. '사랑한다'는 말은 그 시절 우리에게 금기어와도 같은 것이었다. 너무 크고 조심스러운 말이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때 하늘에 떠있던 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끝내 말하지 못한 그 한마디를 말이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다. 집체호 생활도 끝나고 우리들은 각자의 길로 헤어졌다. 누구는 도시로 가고 누구는 다른 고장으로 시집장가가고 누구는 다시 만나지 못한 채 소식이 끊겼다. 엉뚱한 생각도 들었다. 친목회라도 조직해볼까... 우리 집체호 시절의 옛친구 할배 할매들을 한번 모시고 그 삼산벽골로 가보는 이벤트를 조직해보는 것이다. 옛날 감자밭, 원두막이 있던 골짜기에서 하루밤 쯤 지내보는 것이다. 친구 녀석들 모두 잠든 뒤 나는 살짝 밖으로 나와 통나무에 앉고 그때 내 어깨에 살며시 기대앉아주던 그 여자친구도 어디선가 조용히 내 옆에 와 앉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가. 둘이서 아무 말 없이 다시 한번 그때 그 별무리를 올려다볼 수 있다면?... 자칫하면 란리가 날지도 모르겠지만 별을 생각하다 보면 그런 꼴잡 같은 상상 짬은 해보는 것도 괜찮다. 가짜 별천지도 도배된 도시에서는 그런 란란을 찾기 어렵다. 별들이 전등과 네온사인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별빛 아래 마음을 나누던 그 시절을 지금 사람들이 과연 알기나 할까? 오늘 밤도 나는 잠간 하늘을 올려다본다. 혹시라도 50년전 그 밤, 내 어깨에 기대앉은 그녀와 함께 바라보던 그 별 하나가 아직도 거기서 조용히 깜박이고 있을가 해서다. 그때 별 아래에서 썩었던 첫사랑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세월 속에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길도 달라졌지만 그 밤하늘의 별들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바쁘게 살아오느라 한동안 고개를 들어 그 별들을 다시 찾지 못했을 뿐이다. 어쩌면 그때 우리의 첫사랑은 별나라에서 시작될 것인지도 모른다.

◎ 김영호

[ 그때 그 이야기 ]

# 게도바지



김영호 프로필 :

1971년 3월 10일 길림성 왕청현 왕청진에서 출생. 연변과학기술대학 산업기술훈련원, 연변재정무역학교 졸업. 현재 한국에서 회사 근무.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편한 속바지를 찾다가 문득 아주 오래된, 이제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단어 하나가 가슴 깊은 곳을 서서히 데워온다. 바로 '게도바지'이다. 그 이름과 함께 몇해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길이 새삼 그리워진다. 70년대말, 내가 자라던 소도시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깊었다.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북풍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옷깃을 파고들었고 온종일 몸을 웅크리게 만들었다. 그러나 등하교와 공풍 얼어붙은 골목길을 동네 친구들과 함께 장난치며 해맑게 뛰어다니기 위해 게도바지를 챙겨 입던 그 순간, 나는 세상의 추위로부터 든든히 보호받는 기분을 느꼈다. 그 바지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혹한으로부터 어린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던 어머니의 '방패막이'였다. 나에게는 늘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던 년년생 누나가 있었다. 우리는 매사 티가태각하며 자랐고 어머니의 작은 관심이나 먹을 것에 대한 소유욕을 두고 은근한 경쟁을 벌이곤 했다. 어머니가 가마솥에서 끓여낸 누룽지를 동그랗게 뭉쳐 주먹밥을 만들어 주실 때면 나는 슬쩍 누나의 손에 들린 누룽지의 크기를 견뎌보며 나보다 더 큰 쪽을 받았을가 마음을 졸였다. 어머니가 혹여 누나를 더 예뻐하는 것은 아닌지 쓸데없는 시샘과 서운함이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게도바지에서는 언제나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공평함으로 존재했다. 겉으로 보기에 누나는 밝고 고운 실이 조금 더 섞인 바지였고 나는 어두운 색이 더 섞여있던 바지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한을, 코 한뼘에 엮인 정성은 똑같았다. 아이였을 때는 눈에 보이는 색깔의 차이만으로 불평했지만 어른이 된 지금에서야 비로소 깨닫는다. 똑같이 실을 풀고 똑같이 삶고 똑같이 뜨게 바늘로 떠서 누구에게도 덜하지 않은 온기를 담아내려 했던 어머니의 그 '공평한 헌신', 그 평등한 사랑이야말로 나의 유년시절을 지탱했던 가장 견고한 믿음이었었던 것이다. 게도바지는 새옷을 위해 새로 산 실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당시 혼성섬유 뜨개실은 공업기술

의 락후로 무게감과 질감의 균형이 떨어지고 염색의 내구성도 약했지만 저렴하고 화려한 색상 덕분에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다. 우리는 이 저렴한 혼성섬유 뜨개실을 통상 '게도실'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때 그 시절 풍요롭지 못했던 살림 때문에 어머니는 새 게도실조차 사지 못했다. 대신 버려지거나 낡아 못 입게 된 어른들의 털실옷을 한을 한을 정성껏 풀어내 실을 얻었고 그 실다래들을 다시 모아 대나무 뜨개바늘로 새롭게 엮어냈다. 게도바지는 현 실에 어머니의 시간과 마음이 더해져 만들어진 것이었다. 게도바지는 따뜻했지만 그 실이 가진 특유의 뻑뻑함 때문에 무겁고 탄력이 없어 입고 벗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겉다 보면 두꺼운 직물이 아니라 들어붙어 움직임이 매우 불편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가장 생생한 기억은 한겨울 밖에서 뛰어놀다가 갑자기 화살같이 급해 달려갈 때였다. 급한 마음에 두꺼운 바지를 제때에 내리지 못해 결국 게도바지에 그대로 실수를 하고 말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날, 찬 공기와 뜨거운 오줌이 바지를 적시던 열기, 그리고 그 순간의 창피함은 오래도록 내 기억 속에 선명한 자국처럼 남아있다. 하지만 그 불편함조차 이제는 하나의 아련한 풍경이 되었고 나의 성장이 새겨진 시간의 단면이 되었다.

해마다 키가 쑥쑥 자라는 우리 오누이의 성장에 맞춰 어머니는 초겨울이 되면 어김없이 게도바지를 꺼내 밑단을 풀고 옆쪽을 넓히는 수선 작업을 반복하셨다. 밤이 깊도록 들리던 뜨개바늘의 달그락거림은 우리 집 겨울의 가장 포근한 소리였다. 작은 단추 하나, 코 한뼘 한뼘이 모두 '감기 들지 마라, 춥지 마라.'라는 어머니의 말없는 주문이자 간절한 사랑의 축원이었다. 어느덧 나는 인생의 중반을 넘어 오십대가 되었고 어머니는 이제 하늘나라에 계신다. 겨울이 오면 단연하다는 뜻이 편하고 부드러운 속바지를 꺼내 입지만 그 때까리온 직물에서는 게도실 특유의 거친 촉감이나 짙은 녹색 염료의 회미한 냄새를 느낄 수 없다. 다만 추억 속에서 쇠가마의 뜨거움 김과 영성한 열목루 줄무늬로 뜨개질된 게도바지가 어머니의 낮은 숨결과 함께 조용히 되살아날 뿐이다. 이제 게도바지는 력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옷, 누군가에게는 그 존재조차 모를 이름일지 모르지만 내게는 어머니의 손과 체온, 그리고 풍요롭지 못한 시절을 살아간 한 녀성의 숭고한 헌신이 고스란히 엮여있던 하나의 기록이다. 게도바지는 단순히 한 실로 지어진 낮은 속옷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당시의 시간과 마음을 쫓겨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짜낸 온기의 유산이었고 자식만큼은 출세 하지 않으려 했던 무한한 사랑의 증표였다. 어머니가 내게 입혀주었던 그 온기가 있었기에 나는 지금도 마을 한구석의 따뜻함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게도바지처럼 어머니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 산과 바다를 초월한 인연 명나라 진린 장군의 중한 후손들 운부서 뜻깊은 만남



▲ 광동성 운부시에서 한국 전통 복춤을 공연하는 해남군예술단

명나라 진린(陳璘) 장군 탄생 494주년을 맞아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광동성 운부시 운안구에서 '진린민속문화주간'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전라남도 해남군 관계자와 한국내 진씨 후손 약 40명이 참가했다. 발대식에서는 왜구를 격퇴하고 변방을 수호하며 나라를 지킨 진린 장군의 전설적인 생애를 재현한 무대극 <월장진린·룡애봉화요산하(粵將陳璘·龍崖烽火耀山河)>가 상연돼 중한 관객들의 력사적 공감을 이끌어냈다. 해남군예술단이 한국 전통 복춤을 선보인 가운데 룡춤·사자춤 등 중국 전통 민속 공연과 한데 어우러져 현장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국 광동 진씨 종친회장 진경영은 "이번 행사는 매우 훌륭했다."며 "운안구와 해남군 사이에 산과 바다를 넘는 우정의 다리를 놓아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안구와 해남군 이 문화교류를 강화하고 상호협력력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또 민속문화 퍼레이드, 전통 월극(粵劇) 공연, 대중 광장댄스 공연, 밴드 공연, 공의 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잇달아 열려 중한

랑국 국민들은 민속문화의 매력을 몸소 체험하고 산업 발전의 성과를 함께 나눴다. 진린 장군의 14대손인 진현문은 "이번 문화주간은 매우 성대하게 열렸다."며 "멀리서 찾아온 한국의 진씨 후손들을 만나 매우 기쁘고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진린 장군은 광동성 운부시를 대표하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중한 민간 우호 교류의 중요한 교량이다. 지난 2024년 '진린민속문화주간'을 계기로 운안구와 해남군은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2월에는 운안구와 해남군간 축구 교류전이 운안중학교에서 열려 우의를 다졌다. 현재 총투자액 2억 1,300만원 규모의 중한진린문화창의산업단지 프로젝트가 추진돼 량국 문화교류의 새로운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부시 운안구 선전부장 사경홍은 "로랑해전에서 함께 어깨 결고 외적을 막아낸 것부터 오늘날 중한 진씨 종친들이 한자리에 모이기까지 진린 장군은 중한 량국을 잇는 련결고리가 됐다."며 "산과 바다를 넘는 정의 교류와 상호 이해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빛을 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신화넷

## 중국 고대 서원, 동양의 지혜로 세계를 포용하다

전세계가 서로 다른 문명간 대화 방법을 모색함과 동시에 각자만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힘쓰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의 고대 학술기관인 '서원(書院)'이 주목받고 있다. **다름에서 찾는 공감대** 당나라(618-907)에서 기원한 '서원'은 교육, 수장고, 제사 및 학술 토론을 집대성한 중국 고유 기관이다. 송나라(960-1279)에 이르러 서원은 주요 지식 중심지로 자리잡았으며 학자들은 서원에서 비판적 성찰과 학문적 교류 및 학술 토론을 자주 벌였다. 중국 '서원'의 지혜는 명나라(1368-1644) 시기 들어 서양과 공명하기 시작했다. 16세기 후반 이탈리아 선교사 마테오 리치는 강서성 남창시에 있는 예장(豫章)서원을 방문해 당시 유명한 백록동(白鹿洞)서원의 장황(章黃)원장과 교류를 나눴다. 선교사 리치는 서양의 천문학, 지리학, 수학 지식을 가져왔고 수천년에 걸친 유교 리론을 계승한 인문인장황원장의 지도 아래 유교 경전을 공부했으며 장황 원장은 자신의 연구에 서양의 지리학 지식을 반영했다. 이러한 교류는 문화의 상호 존중과 교류의 특징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문명 대화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조선시대 문신이자 학자였던 주세붕은 서원에서 령감을 받아 1543년

백록동서원을 모티브로 한 조선반도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白雲洞)서원을 건립했다. 그후 약 200년에 걸쳐 이 지역에는 900여개의 서원이 생겨났다. 백록동서원의 교훈은 오늘날까지도 한국과 일본의 일부 교육기관에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또 다른 조선시대 학자인 리황은 주자학(朱子學)을 발전시키기 위해 백운동서원을 바탕으로 도산(陶山)서원을 세웠다. 이러한 문화적 흔적은 일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 1천원권 지폐 앞면에는 리황의 초상화가, 뒤면에는 도산서원이 그려져 있어 모든 한국인에게 친숙한 문화유산이 됐다. 중국서원연구센터 주임 등홍파는 해외 서원은 중국 본토 서원과 뿌리가 같지만 전파 시기와 지리적 위치 등 요인의 영향으로 각자 특색있는 서원으로 발전해 나갔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한국 서원은 레의를 중시하고 일본 서원은 출판에 중점을 두며 동남아시아 화교 서원은 지역사회와 교황을 연결하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에 들어서도 서원은 다시 한번 문명간 대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산둥 니산(尼山)세계문화포럼은 서원 문화로 전세계 학자들을 연결하고 있고 호남 악록(岳麓)서원은 첨단 디지털 인문학 연구를 위해 국제 교수진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백록동서원의 강의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전세계로 전파되고 있다. / 신화넷